

누구나 알기 쉬운 장애인학대

온라인 안전하게 사용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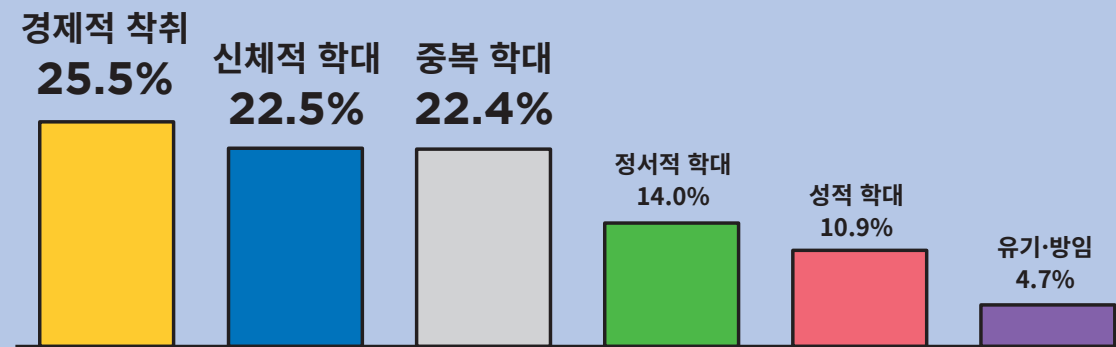


2020년 장애인학대 현황

장애인학대 신고접수

2020년 장애인학대신고는 4,208건이었습니다.

장애인학대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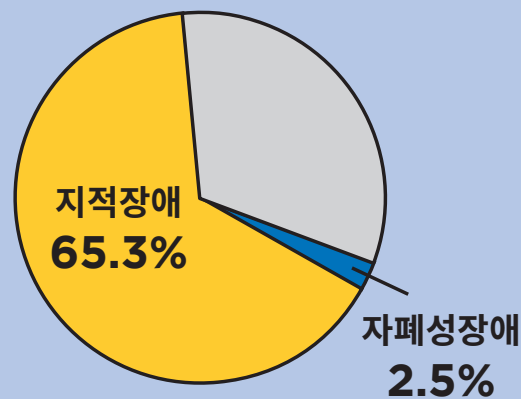


중복 학대는 2개 이상의 학대를 동시에 당하는 것을 말함

피해자 특징

피해자 10명 중 7명(67.8%)이 발달장애인이예요.

발달장애인 피해자 7.3%만 본인이 직접 신고했어요.



이제는 걱정하지 말고 용기 있게 신고해야 합니다!
아니면, 믿을 만한 사람에게 학대 사실을 말해야 합니다!

장애인학대는 무엇인가요?

장애인을 괴롭혀서 몸과 마음을 아프고 힘들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학대유형



신체적 학대

때리거나 꼬집고, 벌을 서게 하거나, 내 몸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면서 공간에 가두는 등 몸을 아프게 하거나 괴롭히는 것



정서적 학대

욕설이나 왕따, 무시하기 등 말과 행동으로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괴롭히는 것



성적 학대

원하지 않는데 얼굴, 가슴, 성기 등 몸을 만지고, 성적인 말을 함부로 하는 것, 성관계를 억지로 하는 것



경제적 착취

일을 시키고 돈을 조금 주거나 아예 주지 않는 것, 겁을 주며 거짓말로 돈을 빼앗는 것, 도와주는 척하며 나를 속이고 돈이나 카드를 마음대로 가져가서 쓰는 것



유기

장애인을 돌봐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가족, 사회복지사, 활동지원사 등)이 장애인을 버리는 것



방임

장애인을 돌봐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 장애인의 건강·식사·위생·청소 등 생활을 제대로 돌보지 않는 것

SNS나 인터넷 등에서 만난 사람에게 신체적, 정서적, 성적, 경제적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피해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온라인(SNS나 인터넷) 속 학대를 피하려면 어떤 것들을 알아야 할까요?



실제 있었던 발달장애인학대 사건

사건에 등장하는 이름은 가짜 이름입니다.

1

준우 씨는 페이스북에서 우연히 여성과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친해졌습니다. 어느 날 그 여성은 준우 씨에게 만나자고 하였고, 준우 씨도 만나고 싶어서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약속 장소에는 모르는 남자 2명이 나왔습니다. 남자들은 준우 씨를 때리고 갖고 있는 돈을 모두 빼앗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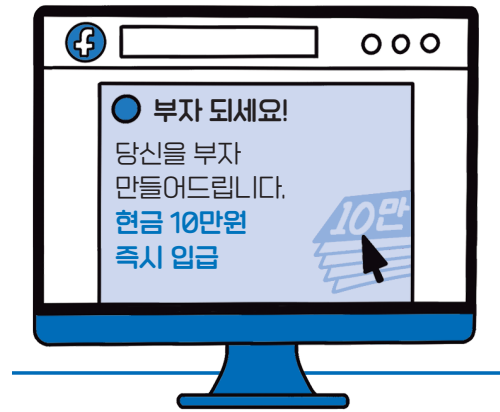
실제 있었던 발달장애인학대 사건

사건에 등장하는 이름은 가짜 이름입니다.

2

연우 씨는 인터넷 게시판에서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10만 원을 준다는
글을 봤습니다.

연우 씨는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자신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지만
돈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경찰관이
연우 씨의 계좌번호가
범죄에 이용되었다며,
경찰서로 나오라고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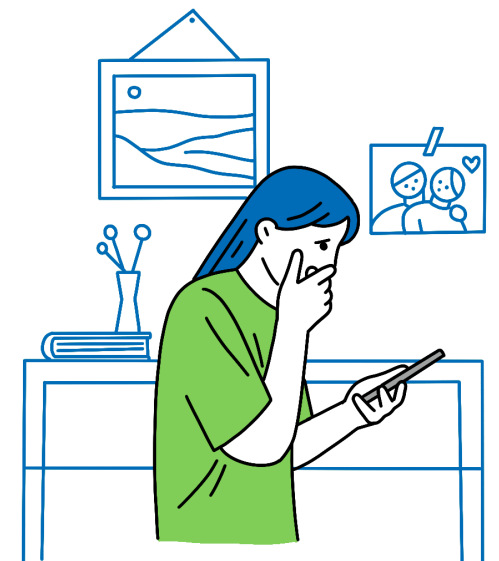
3

지혜 씨는 채팅앱에서 만난
남성과 사귀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지혜 씨에게
알몸사진을 보내 달라고
했습니다.

지혜 씨는 처음에 망설였지만,
남자친구가 계속 졸라서
결국 사진을 보냈습니다.



그러자 남자친구의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지혜 씨의 알몸사진을
인터넷에서 뿌리겠다고
협박하면서, 야한 동영상도
찍어 보내라고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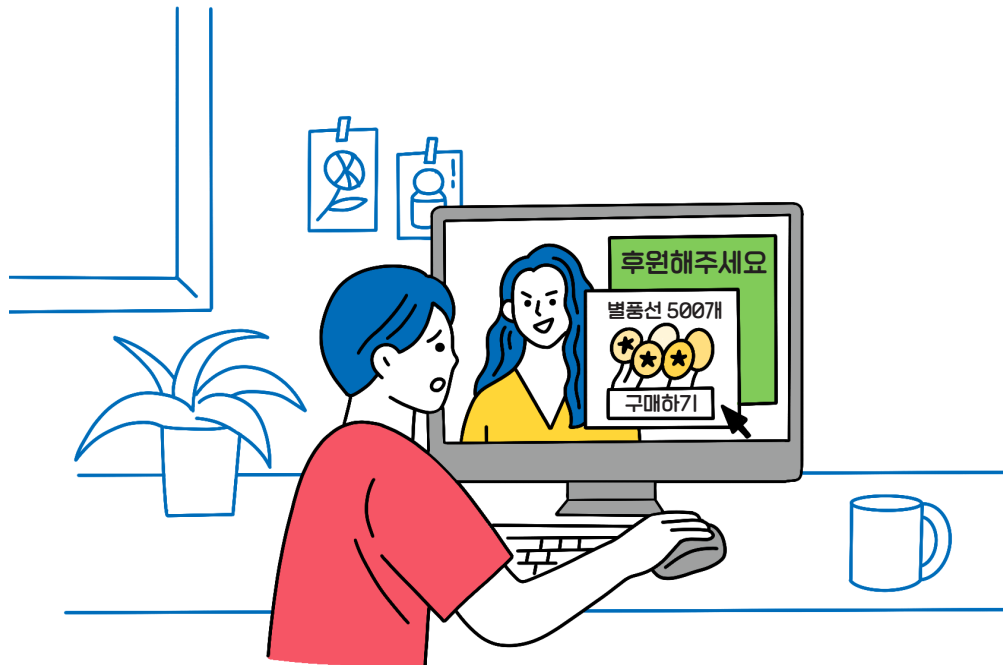
실제 있었던 발달장애인학대 사건

사건에 등장하는 이름은 가짜 이름입니다.

4

도윤 씨는 인터넷 방송을 보다가 마음에 드는 방송 진행자(BJ)에게 별풍선을 샀습니다. 그러자 그 BJ는 도윤 씨와 친해지고 싶다며 휴대전화번호와 사는 곳을 물었습니다. 도윤 씨는 기쁜 마음에 BJ에게 알려줬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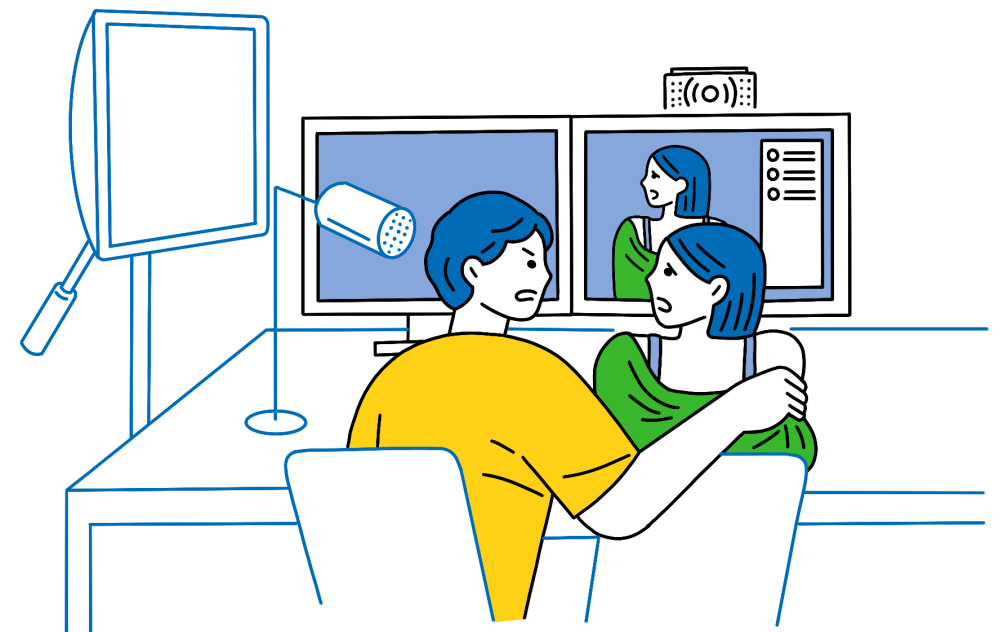
그 뒤로 BJ는 도윤 씨에게 별풍선을 쓰지 않으면 사는 곳에 찾아가서 괴롭히겠다고 협박했습니다. 도윤 씨는 무서운 마음에 계속 별풍선을 보냈고, 결국 300만 원이 넘는 돈을 별풍선 구입비로 썼습니다.



5

혜주 씨는 인터넷 방송 진행자(BJ)에게 방송을 같이하자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혜주 씨는 방송에 나간다는 것이 기뻐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BJ는 방송을 하던 중 혜주 씨에게 갑자기 옷을 벗으라고 했습니다.

혜주 씨가 싫다고 하자, BJ는 “별풍선을 못 받으면 네가 책임질 거냐”고 소리쳤습니다. 혜주 씨는 무서워서 억지로 옷을 벗고 방송을 해야 했습니다.



실제 있었던 발달장애인학대 사건

사건에 등장하는 이름은 가짜 이름입니다.

6

주희 씨는 집과 가족이 답답하고 싫어서 가출을 했습니다. 주희 씨는 배도 고프고 잘 곳도 필요해서 인터넷 카페에 도와달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자 한 남성이 도와주겠다며 주희 씨를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하지만 이 남성은 주희 씨를 집에서 못 나가게 하고 돈과 지갑, 휴대전화를 빼앗았습니다. 또, 그 남성은 주희 씨에게 성매매를 해서 돈을 벌어오라고 협박했습니다.



개인정보는 무엇일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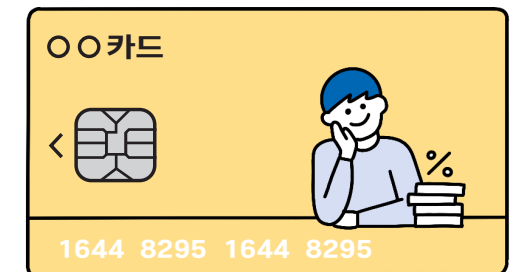


'나'라는 사람을 알 수 있는 정보를 말합니다

● 주민등록증과 복지카드에 있는 나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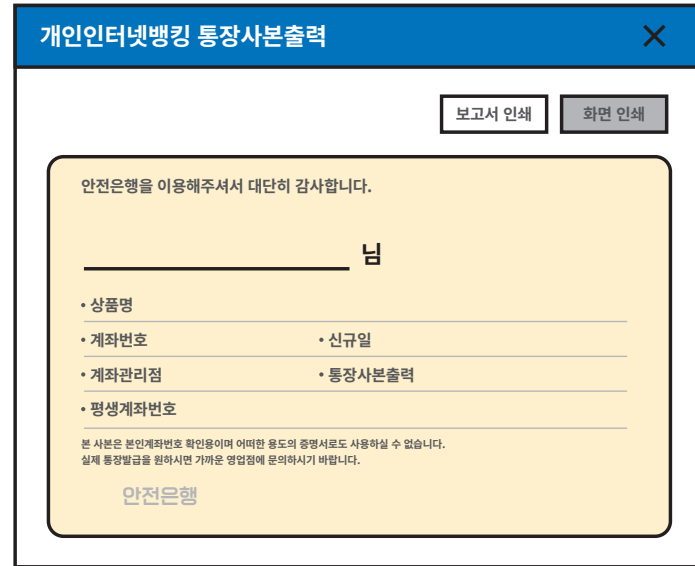
● 휴대전화번호, 사용하는 체크카드번호나 신용카드번호, 계좌번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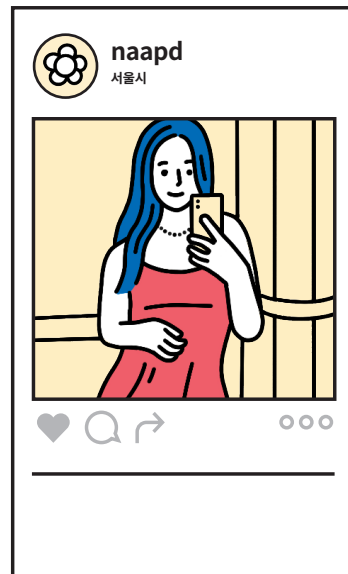
개인정보는 무엇일까요?

● 내가 쓰는 비밀번호, 휴대전화 잠금화면에 쓰여 있는 비밀번호 패턴

인터넷, 휴대전화, 통장, 은행앱, 간편결제 서비스 등



● 내 얼굴 사진, 몸 사진



●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등 나의 정보가 확인되는 증명서

인감증명서: 나의 도장이 문서에 등록된 것

발급확인번호:

주민등록표 (등본) 이 등본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원본 내용과 틀림 없음을 증명합니다.

담당자: _____ 전화: _____
신청인: _____ (생년월일: _____)
용도 및 목적: _____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 출장소장 **직인**

세대주 성명(한자)	세대주 성명(한자)
주소	발생일/신고일 변동 사유
번호	세대주와의 성명(한자) 관계 주민등록번호
	발생일/신고일 변동 사유 등록 상태

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4호서식]

주민등록번호 _____

인감증명서 본 인 대리 인
인

성명(한자) _____ 인
국적 _____ 감

주소 _____

용도 [] 부동산 매수자 [] 자동차 매수자

성명(법인명) _____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법인소재지) _____

OX 퀴즈

나의 얼굴이 나온 사진과 동영상도 개인정보일까요?

정답: O

나를 알 수 있는 사진과 동영상도 개인정보입니다.

SNS나 인터넷을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나의 개인정보를 소중히 관리해야 합니다.

나의 개인정보는 어떻게 관리할까요?



SNS나 인터넷에 글을 올릴 때 나의 개인정보를 잘 보호해야 합니다

● 나의 정보 공개는 조금만

예) 페이스북에 직장, 고등학교, 대학, 거주지, 결혼/연애상대 추가하지 않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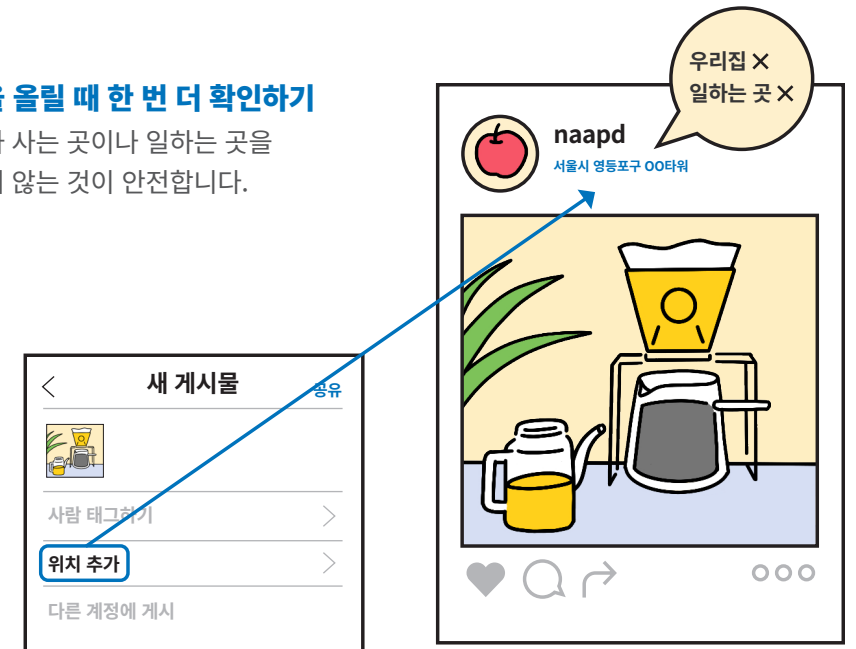


● 게시글을 올릴 때는 친구 공개로 올리기



● 글, 사진과 동영상을 올릴 때 한 번 더 확인하기

글과 사진을 보고 내가 사는 곳이나 일하는 곳을 알 수 있으니 표시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 친구 신청을 한 사람이 아는 사람인지 꼭 확인하기

다른 사람에게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체크카드번호, 신용카드번호, 비밀번호나 패턴, 핀번호, 증명서 등 개인정보를 함부로 알려주거나 보내지 않습니다.

참고 비밀번호나 핀번호는 전화번호나 생일로 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이 알기 쉬워요!

+ 나의 개인정보만큼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도 잘 보호되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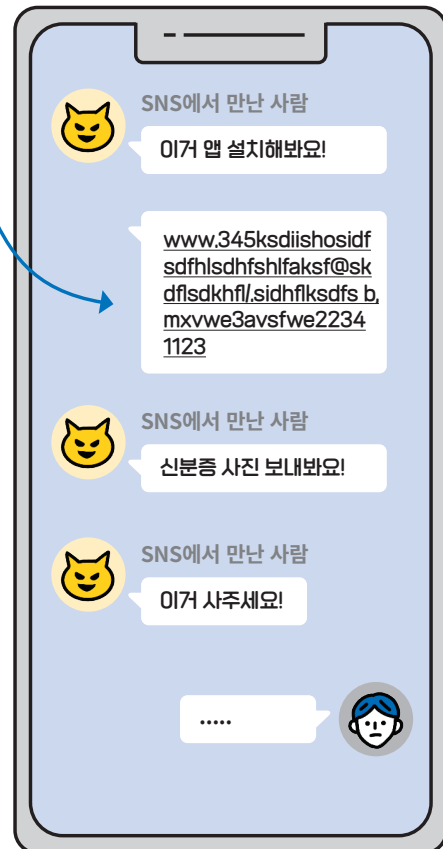
다른 사람의 정보를 허락 없이 SNS나 인터넷에 올리거나 모르는 사람에게 알려주면 안 됩니다. 동의 없이 다른 사람의 정보를 알려주면 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 내가 알려준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가 범죄에 이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은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들었을 때 망설여지는 부탁을 받거나, 특별히 돈을 주거나 혜택을 준다고 할 때는 피해를 당할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 SNS나 인터넷에서 만난 사람이 나에게 부탁을 할 때

- 스마트폰에 새로운 앱을 설치하라고 할 때
- 모르는 링크를 눌러보라고 할 때
- 돈을 빌려달라고 하거나 휴대전화를 개통해달라고 할 때
- 나의 사진, 신분증 사진 등을 보내 달라고 할 때
- 별풍선을 쏘라고 할 때
- 카카오톡으로 비싼 선물을 사달라고 할 때 등



윤경

무언가를 위해 돈을 요구하면 사기라고 생각해야 해요.



SNS나 인터넷에서 돈을 주거나, 혜택을 준다고 할 때

- 고수익 꿀알바,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 메시지를 받았을 때
- 통장을 만들어서 보내면 돈을 주거나 휴대전화를 개통하면 바로 돈을 준다고 할 때
- 오늘만 특가, 75% 할인, 푸짐한 선물을 준다고 할 때



대범

통장은 절대로 주면 안 돼요! 휴대전화 만드는 것도 진짜 신중해야 해요!

생각해봅시다

Q1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SNS나 인터넷에서 나를 욕하고 야한 말을 하는 댓글이나 메시지가 옵니다.



지연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기분 나쁜 말을 댓글로 쓰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제 틱톡에도 찾아와서 똑같은 댓글을 달았어요. 그 사람이 쓴 댓글을 신고했는데, 잠시 이용 정지만 되더라고요. 이용 정지가 풀리자마자 그 사람이 다시 와서 댓글을 달았어요.



현철

컴퓨터로 게임을 하고 있는데 채팅창에 바보라고 욕해서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바로 게임을 꺼버렸어요.



형민

야한 말이나 욕을 쓴 메시지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 당황해서 지웠어요.

SNS나 인터넷에서 욕설, 기분을 나쁘게 하는 댓글과 메시지를 받았다면 지연 씨처럼 고객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했는데도 계속 욕설이나 기분을 나쁘게 하는 댓글과 메시지를 보낸다면 주변에 믿을 만한 사람과 상담을 해서 해결방법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 믿을 만한 사람은 누구일지 이야기해봅시다.
믿을 만한 사람에는 가족, 친구, 활동지원사, 내가 현재 다니고 있는 기관 직원 등이 해당됩니다.

👉 이제, 내 생각을 이야기해봅시다!

Q2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 SNS 친구신청을 해서 온라인 친구가 되었는데 나에게 밖에서 만나자고 합니다.



동호

친구신청을 받을 때 그 사람이 누구인지 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저는 페이스북에서 친구신청을 받으면 그 사람의 프로필과 활동을 찾아보고 이상하면 삭제해요.



지연

SNS나 인터넷에서는 자기가 보여주고 싶은 모습만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온라인 친구는 온라인에서만 보고 밖에서 따로 만나지 않아야 해요. 그래도 온라인 친구를 만나고 싶으면 내가 믿을 만한 사람과 함께 여러 명이 만나는 게 안전할 것 같아요.



세나

페이스북에서 실제로 만나자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저한테 사귀자고 하더니 모텔을 가자고 계속 졸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만나도 되는지 조력자에게 물어봤어요.

모르는 사람이 친구신청을 했을 때 동호 씨처럼 잘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온라인에서만 알던 사람을 실제로 밖에서 만나는 것이 고민된다면 지연 씨처럼 다른 사람과 함께 만나거나, 세나 씨처럼 나의 주변의 믿을 만한 사람과 이야기를 나눠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이제, 내 생각을 이야기해봅시다!

생각해봅시다

Q3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SNS나 인터넷에서 친해진 사람이 내 사진을 자주 보내 달라고 합니다.



세나

페이스북에서 연예인인 척 프로필 사진을 해 놓은 사람이 저한테 사진을 보내 달라고 했어요. 페이스북에서 이름을 검색해봤는데 연예인도 아니어서 차단했어요.



동호

모르는 여자가 갑자기 자신의 알몸사진을 저한테 보내고는 저한테도 알몸사진을 보내 달라고 했어요. 제가 사진을 안 보내니까 제 휴대전화를 해킹하겠다고 협박하면서 돈을 보내라고 했어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했어요.

프로필 사진이 진짜 모습이 아닐 수 있으니 세나 씨처럼 잘 확인해야 합니다. 나의 사진을 보내 달라고 하면 차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단하기 어려우면 빨리 신고하거나, 주변에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 + 최근 남자·여자 모두에게 옷을 벗고 찍은 사진을 보내 달라고 하거나(사진 유포), 옷을 벗고 찍은 영상을 다시 찍어서 협박하는 범죄(몸캠피싱)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나의 사진이나 영상을 인터넷에 뿌리겠다고 협박하면, 그 사람과 주고 받은 사진과 영상, 대화 내용 등 모든 것을 삭제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중에 경찰서에 신고하거나 범죄자를 처벌할 때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으면 믿을 만한 사람에게 바로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제, 내 생각을 이야기해봅시다!

Q4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SNS나 인터넷에서 친해진 사람이 돈을 빌려달라고 합니다.



대범

나는 누구에게도 돈을 빌려주지 않아요. 만약 빌려줬다가 못 받으면 잠도 못 자요. 요즘 돈을 보내기가 너무 쉬워서 돈 관리는 진짜 잘해야 해요.



현철

저는 믿고 돈을 빌려줬는데, 갚는다고 하고 아직 받지 못했어요.



형민

누가 저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했는데, 없다고 했더니 대출을 받아달라고 했어요. 대출을 어떻게 하냐고 하니 신분증이랑 무슨 서류만 보내면 된다고 했어요.

돈을 빌려줄 때는 신중하게 상대방이 이 돈을 언제, 어떻게 갚을지 알아보아야 합니다. 누군가의 부탁으로 대출을 받아야 한다면, 대출을 받을지 말지를 믿을 수 있는 사람과 의논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의 이름으로 대출을 하면, 그 돈을 내가 쓰지 않았어도 내가 돈을 갚아야 합니다.

- + 잘 모르는 사람에게 나의 주민등록증, 인감증명서, 통장 등을 함부로 보내서는 안 됩니다. 잘 모르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서류에 서명을 하거나 도장을 찍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위임장, 대출 서류, 보증 서류 등)

이제, 내 생각을 이야기해봅시다!

피해를 당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에게 일어난 일이 학대인지
확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섭거나 불안한 마음이 들면
위험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의 소리를 잘 들어주세요!



- 1 1644-8295(장애인권익옹호기관)로 전화해서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전화하면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들어줘요. 그리고 들었던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고 도와드려요.
- 2 112(경찰)에 전화해서 이야기를 해요.
- 3 혼자서 말하는 것이 어렵다면 믿을 수 있는 사람과 같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나 경찰서에 가서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 믿을 만한 사람: 가족, 친구, 활동지원사, 내가 현재 다니고 있는 기관 직원, 후견인 등



꿀팁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는 상담을 하고, 법적 대응이나 돈관리 같이 믿을 만한 사람이 필요한 때 도움을 드립니다.

- ① 믿을 수 있는 가족이 없는 경우 공공후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공공후견 서비스: 의사결정이 어려운 성인발달장애인에게 법률 서비스를 지원해주는 제도로 후견인을 정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 ② 성인발달장애인이 스스로 재산을 관리하기 힘들 때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안전하게 관리해주는 ‘신탁’을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속상하다고, 보기 싫다고,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과의 대화 내용이 담긴 메시지 등은 절대 지우지 마세요!

- 1 연락처, 영상이나 사진, 대화 내용, 통화녹음, 통화 기록, SNS ID 등 작은 것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2 돈을 빌려주거나 보낼 때는 상대방의 계좌번호와 은행을 반드시 적어둬야 합니다.
- 3 인터넷에 돌아다니면 안 되는 나의 사진이나 영상을 삭제하려면 그 사진이나 영상의 원본 파일이 있어야 합니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사진이나 영상을 지워주는 곳

원본 파일 사진이나 영상을 처음 찍었을 때 핸드폰이나 카메라에 저장된 것



꿀팁 만약 사진이나 영상이 모두 지워졌어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휴대전화나 인터넷 등에 남아 있는 정보를 찾아서 경찰이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신고자를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신고자가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해요.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1644-8295로
전화해서 이야기해 주세요.



용기를 내어 주세요!

가만히 있다면 아무것도 나아지지 않아요.
우리가 용기를 내서 이야기해야 괴롭힘을 멈출 수 있어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에게 직접 하지 않아도 돼요.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경찰, 조력인, 가족에게
이야기해주세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하는 일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학대받는 장애인들을 위해 나라에서 운영하는 기관입니다.

온라인에서 일어난 피해와 장애인학대에 대해
상담을 하고 도움을 드립니다.

학대받은 것이 확인되면 피해자에게 꼭 맞는 지원을 하고
다시 학대를 받지 않도록 돕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장애인학대에 관심을 갖도록 노력하며
학대가 일어나지 않도록 다양한 교육과 활동을 합니다.



전국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주소

기관명	주소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서울 영등포구 양평로22길 21, 코오롱디지털타워 1412호
서울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서울 강남구 도곡로 416, 서울시립장애인행복플러스센터 6층
부산장애인권익옹호기관	부산 연제구 법원로16번길 10, 금복빌딩 6층
대구장애인권익옹호기관	대구 동구 동부로22길 2, 서한코보스카운티 403호
인천장애인권익옹호기관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 869, 르네상스빌딩 1801호
광주장애인권익옹호기관	광주 서구 상무대로 719, 나라빌딩 2층
대전장애인권익옹호기관	대전 동구 계족로 499, 루루빌딩 3층
울산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울산 남구 중앙로 311, 연세H타워 2층
세종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세종 한누리대로 2107, 보람종합복지센터 1층
경기장애인권익옹호기관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로 130, 누리센터 208호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경기 의정부시 오목로 225번길 140, 성산타워 301호
강원장애인권익옹호기관	강원 춘천시 퇴계로 199, 경림빌딩 2층
충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	충북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1063번길 61-54, 라데팡스타워 303
충남장애인권익옹호기관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56, 천안법조플라자 301호
전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	전북 전주시 완산구 흥산남로 11-10, 경희궁빌딩 5층
전남장애인권익옹호기관	전남 목포시 영산로633, 힐링타워 2층
경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	경북 포항시 남구 대잠동길 4-5
경남장애인권익옹호기관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85, 리제스타워 210호
제주장애인권익옹호기관	제주 제주시 청쿨로5길 21, 1층

장애인학대신고 1644-8295

☎ 전화 ✉ 문자 🗨 카카오톡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만든 곳 보건복지부 ·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 피플퍼스트서울센터

발행인 은종균 **함께 만든 사람** 김대범 · 김동호 · 김현정 · 문혁 · 박세나 · 박현철 · 소형민

경험을 나눈 사람 문윤경 · 송지연

발행일 2021년 9월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2길 21, 코오롱디지털타워 1412호

전화 02)6951-1790 **팩스** 02)6951-1799 **누리집** www.naap.or.kr

피플퍼스트서울센터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양산로 19길 13-2, 별관동 3층

전화 02)2068-3554 **팩스** 02)6280-3542 **누리집** www.peoplefirstsc.or.kr

